

“淨化運動은 意識改革으로부터”

大韓建築士協會 監事 尹 鉉

正直·秩序·創造의 三大目標아래 社會淨化運動이 시작되지만 1년이 되었다.

近代化 推進 과정에서 不作用으로 나타난 온갖 非理와 退弊, 物質萬能과 出世至上主義를 지양하고 正義 社會 具現이라는 새시대의 이념을 우리 社會에 定着시키기 위해 추진되어온 社會정화 운동은 지난 1년동안 非違 不條理의 척결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汎國民의 意識革命의 次元으로 심화 발전시킬 단계에 이르렀다.

權力型 不條理로 상징되는 구시대적 政治風土의 刷新, 公職者 社會의 숙청, 課外授業과 不良輩를 비롯한 각종 社會악의 추방, 거리질서를 비롯한 社會질서의 확립, 청탁풍조의 배격, 허례허식의 추방 등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社會정화 운동은 國民 各階各層과 社會구석구석에 까지 共感帶를 形成하였다.

淨化과정에서 社會淨化運動은 推進의 主体도 變化해 왔다. 初期의 官主導의 改革작업에서 官民이 함께 參與하는 汎國民의 운동으로 발전되고 지역, 직장, 학교등으로 組織이 擴大 되었다.

그러나 意識革命이 수반되지 않는 外적인 社會淨化는 砂上樓閣과 같은 것으로 그것만으로 만성적 비리와 폐습은 근절되지 않으며 잠복 상태에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淨化 以前의 상태로 환원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이야말로 겨레의 運命을

左右하는 歷史的 大課業이며 밝고 정의로운 民主福祉國家의 굳건한 터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깨끗한 정부가 되도록 肅正하는 한편 우리 건축사들도 투철한 準범의식과 건전한 市民精神을 體質化하며 淨化 三大 理念을 生活化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建築士 業界의 自律的인 淨化推進과 잔존부조리의 지속적인 제거와 함께 이에 수반되는 책임회피, 역부조리제거, 나아가 意識개혁을 위한 淨化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다같이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축사로서의 품위 손상행위, 보수의 부당한 할인 및 부당한 경쟁, 명의대여 및 금품수수행위 등은 회원 스스로가 근절해야 할 행동인 것이다.

우리 建築士 業界 淨化運動이 成就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도 강력한 회원의 意志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淨化運動이야말로 一時的인 운동이 아니며 全國民의 意識改革의 長期的인 運動으로 알고 다같이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淨化의 意味는 前時代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그야말로 이치대로 行하는 것만이 곧 利益이라는 等式이 成立되는 社會의 造成인 것이다.

規則과 準則대로 행하면 손해가 아닌 이익이 반드시 돌아오고 각자가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어느때건 반드시 자기 몫과 차례가 오게 돼 있다는 보장이 설 때

다른方法에 신경을 쓰거나 남을 넘보고 짓밟으려는 생각을 안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동료조성을 위해서는 法制上의 개혁이나 캠페인 단속 홍보 계몽도 필요하지만 社會에서의 반복 敎育과 훈련만이 意識개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非理와 無理가 잠시도 묵인될 수 없도록 우리 회원도 눈과 입이 활발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會員들은 社會淨化 運動을 推進함에 있어 正義感을 가지고 時代的 使命을 遂行하는 자으로 임해 나갈 때 建築士 業界 風土는 確立되며 正義社會 具現에 일익을 담당하는 주춧돌이 될 것임을 確信하는 바이다.

만약 많은 회원 및 任職員들이 입으로만 淨화를 외치고 실천 行動이 따르지 못한다면 社會淨化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며 會員 各者가 正義社會의 具現을 바라면서도 淨化와 改革의 대상은 자기 아닌 정부나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自家撞着이 될 것이다.

81년을 보내면서 우리 會員一同은 淨化, 개혁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責任感과 主人 意識을 발휘하여 正義社會 건설에 앞장서야 하겠다.

82년도 부터 社會淨化의 結實은 建築界의 積極的인 參與로 꽃피워지길 기대하는 바 우리 會員들의 막중한 責任感과 活動으로 社會改革에 先驅者가 될 것을 다짐해야 할 줄 믿는다. *